**인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23절>**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필이 없으므로**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골로새서 1장 13-15절>**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라면 다 제각각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대끼며 사는 게 인간이고, 나 자신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익숙한 인간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계몽된 인간성에 의해 세계가 진보하리라는 전망에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문명화된 세계 속에서 인간에 의해 인간에게 자행된 홀로코스트는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첫 장에 나오는 인간에 관한 이 대담한 주장을 피해할 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안에는 특정 부류의 사람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굳이 이 말을 뒤에 덧붙인 이유는, 성별이나 인종이나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죄가 어떤 식으로든 그 형상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걸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원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반영되는 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인간성 속에 어느 곳에서 그것이 반영되는지, 그 반영이 실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해 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은 그 형상을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본질적인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즉, 인간 안에는 신적인 존재를 반영하는 어떤 독특한 능력이 장착돼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이성적 사고 능력이 아니겠는가 생각돼 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독특한 속성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그 탁월한 이성적 사고 능력 속에서 이성적인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초대교회 시대와 중세 시대에 이런 해석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이 해석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본문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본문들은(시19:1;롬1:19),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때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것처럼 보였던 어떤 속성이, 알고 보니 그들과 공유하는 속성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본질적인 능력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이성적 사고 능력을 어린아이나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도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태생적 능력과 연관시키려는 접근은 자칫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인간성의 테두리에서 배제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형상을 ‘기능적’(functional)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형상을 ‘관계적’(relational)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수행하는 어떤 ‘기능’이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신적인 존재의 형상을 지닌다’는 생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권에 두루 알려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의 공식적인 대리자’라는 사실의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때, 이는 그가 신을 대신하여 통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명된 존재란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서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인간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기능을 부여받았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반영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당시 주변 문화권의 것과 구별되는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특정 누군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고 선언한다는 점,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기능을 부여받았음을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시듯, 인간도 근본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는 것은 그의 관계성 속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한 다른 인간(하와)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타락 이야기를 보면,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야기하고, 이어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차례로 문제를 야기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관여하고 서로 대화하는 관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이 관계적 성격은 인간성의 일부인 여성과 남성의 차이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처럼 성적으로 구별된 존재로 구성하심으로써, 그분의 삼위일체 관계성을 반영하는 본질적인 관계성을 인간성 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 옆에 “돕는 베필,” 즉 ‘적절한 조력자’를 붙여주어야겠다 생각하십니다. 사실 당시 아담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인간성을 위해선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부터 다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그와 같은 본성을 지녔으나 그와 다른 한 사람과 대면하여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계신 분이고, 바로 그것이 인간이 반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어떤 인간도 그 혼자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그 인격적 관계성의 반영을 위해 반드시 인간은 다른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적절한 조력자’ 하와를 주신 것이며, 그와 같은 본성을 지녔지만 그와 다른 인간과의 그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반영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능적’ 해석과 ‘관계적’ 해석은 서로 모순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현존과 주권을 대리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특히 자신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으나 자신과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성을 잘 반영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게 하였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그가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반영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기능도 잘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인간)는 우리(인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라기보다, 성육신하여 인간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의 현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자로 기능하며 사셨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부터 옵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들의 끊임없는 악행과 거절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부르신 그 언약관계에 끝까지 신실하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의 현존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맺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비춰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신 모습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반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주권을 대리하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잘 비추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그 고귀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